

동신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종합대상'

실전형 교육모델로 '취업에 강한 AI 대학' 입지 굳혀 지산학 협력·AX 거버넌스 기반 혁신 모델로 고평가

동신대학교가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혁신 모델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와 국제미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상은 인간 중심의 AI 혁신과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해 'K-AI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동신대는 교육혁신원 산하 AI융합교육지원센터로 AI 교육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사적인 AI 교육 혁신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KDN, KT 등과의 산학협력 기반으로 에너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제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 점도 주목받았다.

특히 대학 내 구축된 SEC (Smart Energy Campus)를 단순 시설이 아닌 'AX 실무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천 역량을 높인 점 역시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동신대는 광주·전남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기준) 중 2017년부터 2023

년 졸업생까지 7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하며 취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기존 취업 중심 교육 체계에 AI 역량 강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26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종합대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AI 시대 대학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주의 총장은 "AI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천 직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해왔다"며 "앞으로도 AX 기반 교육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이주희(왼쪽 세번째) 동신대학교 총장이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나선미 금호타이어 상무,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제23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선미 금호타이어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동차의 날 맞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유공자 포상

금호타이어는 '제23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선미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관 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난 1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는 김경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자동차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나선미 상무는 금호타이어 HR부문 및 R&D 사업화 TF

담당 임원으로서, 중장기 타이어 기술 로드맵 수립과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R&D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나 상무는 민간 R&D 협의회 활동 및 주요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약(MOU)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타이어 산업 발전의 인프라 발전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나 상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도약과 타이어 핵심 기술 확보에 일조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R&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용인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KATC), 독일(KETC), 중국(KCTC)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타이어 설계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자율주행 및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구례불교연합회, 이웃에 자비·사랑나눔 실천

성금 500만원·백미 100포 전달

구례불교연합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과 백미 100포(10kg)를 최근 구례군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과 물품은 구례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구례불교연합회 관계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



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미 구례군 부군수는 "매년 변함없는 나눔과 자비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큰 온기를 전해주시는 구례불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며 "전해주시 소중한 성금과 성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광주과학관, 미래 인재 양성 AI 특화캠프 '성료'

살레시오중 학생 40명 대상 1기 프로그램 마무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경우)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살레시오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 AI 특화캠프' 1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인공지능(AI)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숙박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견학과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 중심의 융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참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캠프 첫날에는 AI 주제의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을 방문해 김중원 AI대학원 원장의 '꿈꾸는 아이(AI)' 강연을 듣고, 슈퍼컴퓨팅

센터로 직접 견학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가 바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간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의 특화 시설인 별빛전문관에서 국내 과학관 최대 규모의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측이 진행되어, 첨단 AI 기술과 우주 과학을 접한다는 폭넓은 지적 탐구가 이뤄졌다.

2일 차에는 실습 중심의 심화 교육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액션 AI 로봇 강아지를 활용해 인물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사람을 구별해내는 AI 모델을 직접 구현했다. 이어 상설전시관, 어린이과학관, 인공지능관을 모두 아우르는 트리플 패스 자유 관람을 끝으로 1박 2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국립광주과학관 과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살레시오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6 AI 특화캠프' 1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육실 유지 연구원은 "로봇 실습과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국립광주과학관의 특화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미래 과학 기술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캠프 프로그램을 이어가

고"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특화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주지역 인공지능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13일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자문을 받아 대상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역 내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지역 위기 영아·임산부,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현황,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협력 강화, 위기 영아들을 위한 육아용품 기부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변에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알고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김중원·정연옥씨 장남 영진군, 채화석(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박순복씨 장녀 지우양=23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더 시그너스 웨딩.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람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motto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부음 ▲신권희씨 별세. 신해균·연우·민경·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씨(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 장인상=12일, 전남 해남국제장례식장 분관1호, 발인 14일 오후 2시. 장지 해남 북일면 흥촌리 선영. (061)536-4494.

▲서대욱씨 별세. 배현숙(광주시의회 의정담당관)씨 시모상 = 13일 오전.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영. 063-563-1001

ონსე (음력 3월 28일)

48년생 배우자의 이해를 먼저 구하라
60년생 구술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2년생 숨겨진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날
84년생 쉽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96년생 친구들과 서둘러 화해하라

51년생 가족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63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
75년생 출간한 노력이 성공을 앞당긴다
87년생 강한 나무가 부러지지 마음 넓게 쓰라
99년생 달라지겠다

54년생 전체를 정리해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66년생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78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90년생 이상행을 못 만났으면 오늘 도전하라

57년생 소인배와 일하면 안 좋은 일을 겪는다
69년생 해묵은 정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될 것
81년생 귀하의 지분 마저 포기 될 것이다
93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49년생 전화위복이요 인생은 새옹지마
61년생 주변에서 들은 정보가 매우 유익하다
73년생 진용을 정비 해야겠다
85년생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생 자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겠다

52년생 자녀로 인한 금수가 있을 것이다
64년생 문서 거래는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76년생 행방이 오래 못가고 깨질까봐 두렵다
88년생 동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행동하라

55년생 건강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도로상의 사고를 조심하라
79년생 장래성이 있는 일에 적극 밀고 나가라
9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58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선물을 받는다
70년생 주변사람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82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생 오랜만에 여인과 데이트 하는 날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 매끄러워진다
62년생 재정 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지겠다
74년생 지인의 의견은 받아들여도 무리
86년생 배우자와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98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53년생 속 사정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65년생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지인과 다툼은 너그럽게 이해하라
89년생 열심히 노력했으니 금전 소득 있다

56년생 문서 갈등이 우려되니 가만히 있어야
68년생 뜻하지 않던 문서가 들어 올 것이다
80년생 번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라
92년생 주관적인 행동으로 역효과 보는 날

59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71년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83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다
95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인정받아 능력 발휘